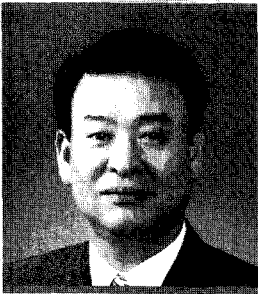


철저한 예방중심의 산업보건사업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지부장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김 준 연

산업보건사업은 크게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조건 감시 및 사업장 보건관리업무 등으로 구분하며, 그것은 이미 1985년에 ILO총회에서 마련된 산업보건사업 규약 161호와 권고 171호에 의거, 철저하게 “예방중심”의 사업이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들도 그러한 맥락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산업보건사업 자체가 전적으로 1차 혹은 2차 예방 위주의 사업인 것은 물론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익히 잘 알고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전문기관이 사업장의 제반 보건문제를 진단, 해결해 나가는 소위 보건관리대행제도를 포함하여 사업장 보건관리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보건교육, 근로자 개인의 생활습관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른바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상담, 유소견자 관리 등 모두가 예방위주의 산업보건사업 내용들이다.

산업보건사업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한 시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되풀이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즉, 일과성의 사업이 아니다. 대개는 동일한 산업보건기관에서, 일정한

산업보건담당자들이 정한 시기에 동일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행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각 산업보건기관에는 부서별로 당해 사업장 혹은 근로자에 관한 제반 건강/질병 관련 자료와 그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 기록 등 매우 긴급하고 생산적인 내용들이 비치, 보존되어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이 귀중하고 값진 자료들이 다수의 사업장과 근로자들을 위하여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 채 때로는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도 늘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것의 해결책을 고민해오고 있다.

산업보건사업을 주관하는 기관과 전문가들은 뉘뉘뉘해도 당해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무엇인가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당연히 그들에게 실익을 안겨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실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그 실익의 정체는 어떠한 것이겠는가? 그 해답은 전술한 바와 같이 철저한 예방중심의 산업보건사업을 통하여 생산되어 질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다. 단지 실천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잠시 잃어버린 것이다. 요컨대 근로자 건강진단 업무는 산업보건사업 가운데에서 비교적 우선순위가 높은 편이며, 자격을 갖춘 산업의를 포함한 전문가그룹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진단에 앞서 과거의 건강/질병관련 자료를 비롯하여 그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기록까지도 체크하는 것에 숙달된 의사가 진정한 산업보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태가 소위 철저한 예방 위주 산업보건 활동의 일레이다. 그러한 의지와 열정을 통하여, 때로는 문진과 이학적 검사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실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관리대행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건관리대행 의사는 최소한 당해 사업장의 연도별 작업환경관리 자료와 유소견 근로자들에 관한 과거의 기록들을 당해 사업장 출발에 앞서 사전에 한번쯤 체크하는 데에 익숙해져야 한다. 비단 의사뿐만이 아니라 보건관리대행 간호사와 산업위생기사도 동일하다. 즉, 산업보건간호사 역시 당일의 보건관리대행 사업장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유소견자들의 연도별 신체검사 기록과 건강상담 일지는 물론 필요 시 그 사업장의 작

업환경관리의 자료들까지도 챙겨보는 여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 산업보건 기관이나 산업보건전문가들께서는 필자의 의견이 전혀 필요치 않을 만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천을 보편화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으나,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며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방중심”의 산업보건사업을 철저히, 그리고 바르게 실천하는 하나의 길이며, 동시에 이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업장에 대하여 실제적인 이익을 생산한다는 인식을 갖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사업장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산업보건관련 자료와 기록들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된 산업보건학적 연구에 이용될 수 있게끔 소위 “Research oriented data 가 될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부언한다. ☺